

제 24 호

제 4 부활주일  
(성소주일)

1973. 5. 13

# 순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교황 말씀】



## 내 목숨을 내 스스로 바칩니다

교황 바오로 6세

어느덧 제10회 성소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시기 한 가운데서 성신강림을 기다리는 이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며, 축복받은 이 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기쁨과 책임을 느끼며 친애하는 신자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같은 주교직을 수행하는 형제 주교 여러분, 그리고 사제, 부제 남녀 수도자, 재속 단체인, 전 세계에 흩어져 일하는 선교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부모들과 교육자 여러분에게, 특히 미래를 향한 각자의 길을 찾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아마도 성체의 신비를 공동으로 집전하는 전례 집회때 그리스도께서 몸소 여러분 가운데서 당신의 제사를 봉헌하시며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순간에 나의 이 호소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호소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호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주일의 복음부터 설명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착한 목자, 진정한 목자, 유일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의 복음은 풍부한 내용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자유로이 바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양들을 알고 계시며, 양들도 그분을 알아모십니다. 그분은 아직 당신 우리에게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격정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들이십니다. 마침내는 그 양들 까지도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 듣고 드디어 한목자에 한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풍부한 내용 가운데 단 한 가지만을 골라서 제10회 성소주일의 주제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내 목숨을 내 스스로 바칩니다”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이 말마디를 여러번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온전히 바치시는 그 후회없고 스스로 바치시는 완전한 자유에 관한 교훈이요 모범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알아듣는 완전한 뜻의 “부르심=성소”는 신앙의 위대한 진비입니다. 사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주인이 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만물을 불러 존재하게 하시고, 생명체를 불러 살게 하시며, 영적 존재를 불러 당신을 알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또 인간을 부르시어, 당신과 협력하며 만물을 다스리고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천사들 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고,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

구세주 예수께서는 “모두 내게로 오라”하시며 모든 사람을 당신 나라로 불러들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를 따르라,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며 따로 부르시어, 남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당신의 구원 사명에 참여시켜 주십니다. 또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시는 성신은 사람들 마음 속에 개별적 성소를 매아리치게 해 주십니다. “각자에게 당신이 원하시는대로 당신의 은혜를 나누어주시는 성신께서는” 신자들 각자에게 갖가지 은총을 나누어주시어, 교회의 쇄신과 확장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과 직무를 수행하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즉 성신께서는 “공동 이익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께 맡겨주셨고 모든것을 여러분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관한 것, 교회 건설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복음 전파까지도 모두 다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다만 한가지 필요한 일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느님의 이 후심에 대하여, 여러분 편에서 아낌없이 후한 협력으로 응답해 드려야 하겠다는 것뿐입니다. 최초로 응답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도 “내 목숨을 바치나이다”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아낌없이 관대해지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선택한 생활설계가 어떤 것이든, 또 여러분의 장래 계획이 무엇이든, 성세의 부미심은 바로 관대해 지라는 성소입니다. 성세는 신앙과 행동으로 실현되는 완전한 신자 생활로의 계속적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일찌기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하셨던 것입니다. 더구나 특별한 성소를 받아 교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축성된 생활을 선택한 사람들은 남보다 더욱 관대해 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성소는 여러분을 따르며 재촉하여, 여러분의 응답이 날로 더욱 충실해지도록 요구합니다. “너희가 많은 결실을 맺으면 내 성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은혜가 주어졌으므로 여러분도 더 많은 것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아직 결정적 생활설계를 선택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관대해지리라는 이 성소를 알려 주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열려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에 봉사하는 길도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아무 응답도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여러 갈래의 길이 아무도 건지 않는 썩발이 되어서 쓰겠습니까?

(3면으로 계속)

※ 이 주일의 미사 ※

□ 입당송 야훼님 사랑은 땅에 가득하고, 그 말씀으로 하늘이 말들어졌도다. 알렐루야.

□ 제1독서 (사도행전 4:8-12 성서 P. 271)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 밖에는 없다.

□ 증계송 ◎ 알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받으소서. 우리는 주님의 전당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당신은 내 하느님, 감사하나이다. 내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

□ 제2독서 (요한 1서 3:1-2, 성서 P. 545)

하느님의 본 모습을 뵈오리라.

□ 알렐루야 알렐루야. 나는 착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내가 알아보고 내 양들도 나를 알아보다. 알렐루야

□ 복음 (요한 10:11-18, 성서 P 231)

착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 신자들의 기도 (성소를 위한 기도)

1. 오 예수여, 영혼들의 천상 목자시여, 주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오늘도 열심하고 마음 넓은 우리 젊은이들을 부르시어, 당신 제자로 삼으시고, 당신 일꾼으로 삼으소서. 그들도 주와 함께 만민의 구원을 목말라하며 제단에서 당신 제사를 날마다 새로이 바치게 하소서.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언제나 우리의 증재자로 살아 계시는 주 예수여, 우리 시야를 전세계로 넓혀 주소서. 전세계의 무수한 형제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묵묵히 찾고 있사오니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당신 부르심에 호응하며, 당신의 사명을 이어받아, 주의 신비체인 교회를 건설하고,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게 하소서. ◎

3. 오 주여, 또한 순결하고 마음넓은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복음의 완덕을 갈망하는 그들의 소망을 북돋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바쳐 교회에 봉사하며 그들의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 봉사하게 하소서. ◎

■ 맺음기도 주여 비오니, 저희들의 조그마한 정성들을 모아 당신의 나라를 이 세상에 퍼는 일꾼을 찾고 길러 보겠다는 교구의 사제 양성 후원 사업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나이다. ◎ 아멘

□ 부활 감사송

□ 영성체송 당신의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고 당신의 양떼를 위하여 죽으셨던, 착하신 목자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 양지쪽 □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봉직하고 있는 학교의 중학생이 1,400명이다. 그 가운데 200명 이상이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자전거 통학에 따르는 위험도 그렇고, 또 가끔 일어나는 분실 사고라든가, 그 보관 장소 문제들 때문에 자전거 통학을 통제해 보았다. 지도를 놓고 직선거리 2Km까지 원을 그어, 그 안쪽에 사는 학생에게는 통학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중학교 2학년 학생 하나가 어린양 비슷한 항의를 하는 것이다. 선생님은 모른다라는 것이다. <책가방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아는데 아니라 그 조그마한 체구에는 너무나 무거운 가방임에 틀림없다.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요즘은 학교 교육에 관심이 쏠려 많은 것이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뜨는 등 마는 등 수저를 놓고는, 개인 또는 그룹별 지도를 받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학생들의 고달픈(?)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등교하기도 전에 한 강좌가 끝나면, 학교에서의 6시간 내지 7시간의 정상 교과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보충수업이라는 것이 2시간 내지 3시간이요, 야간 자습이 있어서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2, 3학년생들은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 간다.

이러한 일정에 묶여 사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도 저녁 시간에는 더운 밥을 지어 학교로 나르고, 바가 오면 우산을 가지고 학교를 찾는다. 자녀들의 학습을 위한 부모님들의 열성이야 말로 놀라울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좋은 직장의 취업을 위해서 애쓰는 부모님들의 은공은 그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의 문제가 있다. 자녀들의 인성 지도보다는 그 출세(?)를 더 큰 목표로 삼고 자녀 지도에 임하는 것 같다. 자녀들 안에 감추어져 있는 소질의 계발 보다는 장차 수입이나 장래의 명성을 위해서는 적성에도 맞지 않는 피아노요 바이올린, 무용을 하게 하는가 하면 억지 과의를 받게하는 것이다. 인성 도야에는 너무나 무관심했다가 그 자녀때문에 가슴을 치면서도 우선 먹기는 꽃같이 달아서인지 알뜰한 출세만 관심이 크다

오늘은 마침 성소 주일이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주신 <감추어진 뜻>이 무엇인지 찾아 보아야겠다. <당신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갑)

지성인의 필독서

제간 전 망(展望)

광주 대진 신학 대학 발행

※각종 양복, 양장지 도산매※

신우라사

서울은행 전주 지점 옆

(전화 ㉠ 2212 ㉡ 7071)

김병구(반찬시오)

성서와 성물문

성 바오로 서원

중앙성당 옆 (전화 ㉠ 7398)

☆최신형 드레스 및 신부 화장☆

결혼 미용실

교우들에게 특별 봉사

이현주(베베자)

전화 ㉠ 6794

중앙성당 앞

\* 대화의광장

잔디밭

<1면에서 부터계속>

까? 젊은이들은 본래 후하고 관대합니다. 이점에 있어서도 후하고 관대해져야 하겠습니다.

사도 성 바오로께서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으랴?”하셨으므로 얼핏 생각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못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자유로운 인간으로 창조하셨으므로, 이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가지 가지 성소는 강한 힘을 가지면서도 친절한 초대와도 같이 부드러운 것입니다. 이 초대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강한 힘도 내포하고 있지만 인간의 자유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인간이므로 여러분 자신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최적으로 “내 목숨을 내 스스로 바치나이다”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도 자유로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젊은이들과 그밖의 모든 친애하는 신자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이론과 환경도 여러분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을 방해할 수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주저하고 무슨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 모습은 급속도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중이 이 땅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영욕으로 병든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 주위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 친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은 모든 사람에게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일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목상과 기도를 바치는 오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강복하시고,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대와 선택의 자유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한 마음을 더욱 후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자유를 온갖 장애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원하며 나도 마음으로 부터 사도적 축복을 보내는 바입니다.

1973. 5. 13

제 10회 성소 주일에

\* 이 주간의 성경 \*

- 14(월) △ 성 마리아 사도  
독서 (사도행전1: 15-17, 20-26, 성서 P. 265)  
복음 (요 한15: 9-17, 성서 P. 246)
- 15(화) 독서 (사도행전11: 19-26, 성서 P. 292)  
복음 (요 한10: 22-30, 성서 P. 232)
- 16(수) 독서 (사도행전12: 24-13: 5, 성서 P. 294)  
복음 (요 한12: 44-50, 성서 P. 240)

- 17(목) 독서 (사도행전13: 13-25, 성서 P. 295)  
복음 (요 한13: 16-20, 성서 P. 241)
- 18(금) 독서 (사도행전13: 26-33, 성서 P. 296)  
복음 (요 한14: 1-6, 성서 P. 243)
- 19(토) 독서 (사도행전13: 44-52, 성서 P. 298)  
복음 (요 한14: 7-14, 성서 P. 243)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3498)

- 14일 (월) 외국 문화 교실 (불어, 오후 5~6시)
- 15일 (화) 외국 문화 교실 (독어)
- 16일 (수) 여성교실 (오후 2시)  
※ 특강...신심에 대하여 (함승천신부)
- 17일 (목) 외국 문화 교실 (독어)  
외국 문화 교실 (불어, 오후 5~6시)
- 18일 (금) 외국 문화 교실 (독어)

알 림  
젊은이의 광장 (성경교실) 임시 휴강  
담당하시는 유 장훈 신부님이 서울 연수회 참석 관계로 5월 1일부터 당분간 휴강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축 부 활 \*

\* 축 부 활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전주시 효사동 1가 오거리동 동아여관앞 전화 ☎6094

동남샤프 {T V 냉장고 선풍기

전주대리점

전화 ☎8121

여요셉(운창)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성소 주일 행사 안내

1. 주일 학교부 (5월 13일, 중앙성당) - 사생대회 (오후 1시반) 미사 (오후 3시)
2. 중·고등부 (5월 13일 오후 3시, 가톨릭 센터) - 미사, 영화, 사진 전시회
3. 노인부 (5월 14일 오후 3시, 가톨릭 센터) - 목주의 기도, 말씀의 전례, 특별강론
4. 일반부 (5월 14일 오후 8시, 가톨릭 센터) - 말씀의 전례, 특별 강론, 영화.

(소) (식)

(중앙)

(전화 2651, 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종순

1. 꾸리아 옥외 행사 (오늘 10시반, 전당리 공소)
  - ① 9시반에 중앙성당에서 대절버스 출발
  - ② 단원 및 협조단원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2. 대학생 야유회
  - ① 출발-5. 13(일) 오전 8시반
  - ② 장소-구이면 오봉산(운암 댐)
  - ③ 준비-회비 250원, 도시락, 건전한 마음과 몸가짐
3. 가정방문을 금주간은 쉽니다.
4. 견진 성사 신청 마감 (금주간에 한하여, 사무실)
  - 지난 주일 봉헌금 31,229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본당 신부님께서 위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난 4월30일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하시어, 5월 9일 오후 5시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신부님의 완쾌를 위하여 기도중에 일치합니다.
2. 오늘 봉헌금은 성소 계발과 후원을 위해 쓰여집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3. 성모성월 공동기구 (저녁 미사후)
4. 유아세례 (오늘 공식 미사후)
  - 지난 주 성미 4말, 누계 139말 8되 5홉
  - 지난 주일 봉헌금 12,615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황승현 사도 회장 이태영

1.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
2. 부녀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후)
3. 예비신자 등록 (5월말까지, 주녀님에게)
4. 견진 성사 받을분 등록 바람 (5월 15일 까지)
5. 교무금, 본당 신축기금 내는 일에 힘껏 협조합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12,056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육낙철

1. 반화합 14일 (4, 6반, 11반 17반) 15일 (1, 2반 3반) 17일 (7.8반)
2. 성모의 밤 (다음 주일 밤 8시 미사후) 5월은 성모 성월입니다. 모든 신자들의 참례를 요망합니다.
3. 성소 주일 행사 안내
  - ① 노인부-회장단
  - ② 일반부-작부차장
  - ③ 중·고등부-교무부차장
  - ④ 주일학교-교리교사 모두 적극 참여합니다.
- ☆ 축 결혼 ☆ (15일 10시) 김 봉환(시몬)군과 고 정애(마리아)양
  - 지난 주일 봉헌금 10,116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1. 견진성사 희망자 등록 (6월 6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장님께 등록하시기 바람
2. 예비신자 교리 시작 (오늘 공식미사후) 수강 희망자는 담당자에게 등록하시기 바람.
3.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미사후) 가입신청서와 인감을 빨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4. 35사단 미사 (오늘 오후 2시) 미사에 참례하실분은 1시까지 사무실로 오십시오.
  - 지난 주일 봉헌금 5,708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1. 자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성소 주일 특별 헌금 성소 계발과 후원 사업에 적극 협조합니다.
3. 견진 성사 안내 (6월 17일에 견진 성사 있음) 희망하시는 분은 주녀님에게 미리 등록합니다.
4. 주일학교 어린이 미사시간 변경 (9시로) 11시미사를 9시로 앞당깁니다. 교리시간은 오전10시에 그대로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주일학교 교리 교사 모집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하실분은 본당 신부님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협조 바랍니다.
6. 신용조합 월례회 (5월 14일, 밤 8시)
  - 지난 주일 봉헌금 26,951원, 감사합니다.

사제양성 후원 기금 예약 현황

누계	8,826,400원
김 제	천주교회 100,000원
남 원	천주교회 150,000원
대 야	천주교회 200,000원
복 자	천주교회 1,265,000원
서 학	천주교회 752,400원
전 동	천주교회 1,840,000원
중 양	천주교회 2,519,000원
진 안	천주교회 1,000,000원
월 명	천주교회 750,000원
화 산	천주교회 250,000원

감사합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 양성 후원회

5월은 성모성월

천주의 섬모 마리아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 농약. 씨앗. 농기구 ※

전북농약사

박태수(벨라도)

전동 3가 148. 전화 6090

매곡교 네거리에서 남부배차장으로 가는 길목 (오성주장 앞)

최씨관집

경의차·꽃상여·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 교우들에게 특별 염가 봉사 ★

최병화(그레고리오)

전주 남부 시장 B동 87호(전화 6691 교환85번)